

-2012년 8월 14일 강원도 홍천 모곡리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완공-



<참 제자 마을 건립 일지>

2006 년 12 월 '참 제자 마을' 건립을 기성(期成)하였습니다. 초대 추진위원장은 고 양 명신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께서 맡아주셔서, 이후 백방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2007 년 10 월 2 일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 222, 223 번지의 27,167 평 임야를 구입, 11 월 11 일 참 제자 마을 임야 봉헌미사를 드렸습니다.

2010 년 7 월 임야 진입로 확보 겸 '참 제자 마을'의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모곡리 임야 앞의 938 번지 밭 587 평을, 12 명의 참 제자 마을 조합을 구성하여 구입함으로써, '참 제자 마을' 진입로가 확보되었습니다.

2010 년 12 월 5 일 2 대 추진위원장으로 이 상윤 도미니꼬 형제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2011 년 10 월 4 일 '참 제자 마을' 진입로 및 '피정의 집' 공사가 시작되었고(9 월 30 일 성우건설 박 보형 아우구스티노와 계약, 모도건축사무소 이 응락 설계 및 감리, 참 제자 모임 감독관 석 용식 라우렌시오), 피정의 집 건립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으로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2011 년 10 월 30 일 기공식 및 기념 미사를 드렸습니다. '피정의 집' 경당에서, 2012 년 4 월 5~7 일 오후 8 시 성삼일 전례와, 8 일 오전 11 시 부활 대축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참 제자 마을(피정의 집) 초대 사무장으로 이 두희 미카엘 형제님이 부임하셔서, 이 동무 헬레나 자매님과 함께 상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 년 5 월 27 일 '참 제자 마을' 공동회장단으로 문 수정 가타리나(대표), 백 영국 세례자 요한(대내), 박 광용 아우구스티노(대외)가 선임되었고, 안 상용 루카 형제님께서 준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게 되었습니다.

2012 년 6 월 이후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경당에서 11 시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3 일경 토목 준공 허가가, 8 월 14 일 건물 사용 허가가 나와서, 피정의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모곡에서 보내는 편지

구 요비(읍) 신부

지난 4 월 8 일 부활 대축일 미사를 모곡 참제자 마을 피정의 집에서 거행한 후, 주말이면 형제 자매님들이 내려오셔서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많은 노력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로 드디어 홍천 군청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성북동 프라도의 집의 책임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지난 5 년간 형제 자매님들이 이 집과 저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커다란 복(福)을 받으셔서, 커다란 살림을 차려 분가(分家)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옛말에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듯이 세상 일이 덧없고 변천이 심함을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6 년간 꿈꾸고 준비하여 온, 특별히 지난 1 년 사이, 이 피정의 집을 지으면서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이 말을 상기해 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척박하다는 북향(北向) 땅에 집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많은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960 년 이후 보리고개를 넘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들어온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낸다!” 라는 의미를 문득 실감하며, 땀 흘려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말에 이곳에 내려와 머무르면, 나를 짓누르는 많은 일의 중압감이 주는 근심 걱정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平靜)을 찾게 됨은 어인 일일까요? 잠시 내려오는 우리를 반가이 영접하는 산새들의 노래와 나무숲과 각종 야생화의 향기들이, 삶의 의욕과 용기와 힘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희(미카엘) 사무장님과 이 동무(헤레나) 자매님이 전해주는 이곳 동네 분들과 매일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일들을 듣다 보면 깨알이 쏟아지는 듯합니다. 헤레나 자매님은 아주 탁월한 외교관이자 평화의 일꾼입니다. 두 분은 매일 새벽 경당에서 성무일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십니다. 기도가 몸에 배인 두 분의 모습은 노 수도자의 삶처럼 경건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 즈카리야와 엘리사벳,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경배한 시메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얼마 전 밤에 지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 뱀이 한 마리 누워 있었습니다. 이놈을 보는 순간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30 여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징그럽고 무서운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놈을 만났는데도 왜 이리 마음이 뿌듯하던지요! 사무장님과 함께 정성스레 사로잡아 야산에 돌려주고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사이 좋게 살자!” 고 말했습니다.

지난 12 월 말 제 즐겨 ‘복음 우리의 길’ 출판 전후에는 제 침실에 생쥐 새끼들이 들끓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놈도 죽지 않고 도망간 일이 있구요! 또 피정의 집 공사 시작하던 무렵에, 상처 입은 커다란 산돼지가 진입로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걸 인부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마음이 아팠던 기억도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피 가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젓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젓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라도 사람들을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사 11,6-9)

모곡의 이 터전은 누가 무어라 해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고향집이자 영혼의 안식처로서, 나아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으시는 많은 분들의 힐링 센터로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요즈음입니다.

‘말씀을 입고(성자를 알고) 성령을 가짐’이, 참 제자의 ‘가난함’

박 광용(아우구스티노)

1. 마르코 6,7-13 ; 연중 제15주일 복음 묵상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 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2. 주님께서 파견하시는 제자의 권한

주님께서 파견하시는 제자의 권한은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이라 하시므로, 주님의 사도가 되는 제자는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받은 파견자가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아 파견된 제자의 사명은 ‘회개하라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파견하시는 제자가 세상에서 하는 실제 일(사업)은, 첫째, 어느 곳이든 받아들이고 말을 들으면 (회개하면), 은총으로 구마하고 치유하는 일이니,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의 병을 (기름을 부어=은총으로 축복하여) 고쳐주는 일이 됩니다. 둘째, 어느 곳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듣지 않으면 (거부하면), 발길을 없애서 은총을 차단하는 상태로 놔두는 일이니, 자기 발 밑의 먼지를 털어 버리는 일이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다는 2개의 실제 사업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마귀 들림이란, 은총을 거부하는 인간 세상의 병통이 마귀(더러운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로 ‘마귀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말할 것입니다. 병자란, 은총을 거부하는 인간 세상의 병통이 마귀(더러운 영들)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자기 자유의지로 이를 즐기지 못함을 알고, 이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을 말할 것입니다.

3. 주님께서 파견하시는 제자가 지향하는 완전한 사람

주님의 파견자(사도)인 제자로서 완전함을 지향한다면, ‘길을 떠날 때 꼭 필요한 한 벌 옷과 지팡이와 신발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아야’ 하고,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니, 이는 필요하지 않은 이중적 치장 내지 이중적 마음가짐에서는 결국 이런 저런 속임수가 나올 뿐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결국 주님께서 파견하신 제자가 입고 가진 것이란, 주님(하느님 말씀)을 입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성령의 권한)을 가진 것뿐일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성자(말씀)를 입고 성령을 가질 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만으로 걸어감, 바로 제자들에게 권하는 가난(Kenosis에서 오는)일 것입니다.

4. 참 제자의 가난함

이 복음의 ‘가난’을 동아시아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세속의 풍요-명성-권세 등에 대한) 가난함 그 자체(赤貧)나, 맑아서 가난함(淸貧)이라기보다는, 가난해서 편안함(安貧)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아시아의 ‘가난해서 편안함(安貧)’이 도를 즐거움(樂道, 하늘과 인간의 바른 길을 즐거움)을 그 전제로 하듯이, 복음의 가난함은 ‘말씀을 입고 성령을 가짐’을 그 전제로 합니다.

5. 참 제자 마을 공동체

참제자 마을 ‘피정의 집’ 준공을 맞아, 구 요비 신부님께서 ‘참 제자’로서 지녀야 할 영성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하셨지만, ‘성자를 알고 성령을 가진다’는 슈브리에 신부님 글에서 얻은 7월 15일자 복음 묵상으로 대치합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바탕으로 하시는 구 신부님과, 함께 동반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영성’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오랜 세속의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오는-을 없앨 수 있었고, 고 양 토마스 형제님을 필두로 하여 참 제자 마을을 추진해 가면서, 특히 성체 앞에서의 주일복음 묵상과 나눔들로 해서, 성자를 알고 성령을 가지려는 참 제자 님들의 영성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깨달았으니, 커다란 복이였습니다.

*** 2012년 6, 7월 후원 봉헌금 현황 ***

6월 기존회원 75명, 신입회원 2명, 합계 14,630,000원

7월 기존회원 71명, 신입회원 1명, 합계 13,027,000원

<참 제자 마을 후원 봉헌자 명단>

2012년 6-7월 신입 : 최재승 베드로/김을순 안나
이종용 안토니오 <이상 3인>

성물 봉헌: 김정임 젤뜨루다 <이상 1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정의 집(60명) 건립에 아직도 3억원 정도의 대출금
이 남아 있고, 추가적인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 분들께 신규회원 가입 및 봉헌을 적극 권
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요비(읍) 사제 서품 30주년 글 모음 '복음 우리의
길'을 17,000원(30% 할인가)에 공급합니다.

*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에 필요한 스테인드글
래스(경당) 등에 대한 성물 봉헌자를 찾고 있습니다.

* 2011년 10월부터 구좌 회원제로 전환하고(1구좌당 월
10,000원), 참 제자 마을 2단계 사업인 '피정의 집' 건
립을 위한 후원 봉헌금을, 일시금 납부, 약정 납부,
구좌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 구좌 번호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031601-04-164956 국민은행 양업문화참제자마을

01168-12-001493 신용협동조합 양업문화교육원

<연락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핸드폰; 011-9917-4523

E-Mail : kujob@catholic.ac.kr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전화 ; 070-8845-1004

<양업문화교육원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yanguptown

* 참 제자 마을의 목표

강원도 홍천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에 따
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
의 깊은 영성을, 슈브리에 신부님의 길을 본받아 살
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건강한 공동체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 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배우며, 친
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터.
- **쉼터 - 나눔의 집**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
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터
- **돌봄과 나눔의 영성적 녹지 공간**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이자, 순수 자연 속의 묵상의 터.
참제자 마을 생산 농산물의 나눔과 축제의 터

* 슈브리에 신부님의 시성을 위한 '구일 기도' 요청
나누어 드리고 있는 '복자 앙트완느 슈브리에 신부와
함께 바치는 구일 기도'를 참제자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매 주일마다,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경당에서
11시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7월 01일(9명), 08일(12명), 15일(32명)
22일(19명), 29일(16명)

* 모곡 참 제자 마을에 야외 '14처'와 성모상을 설치

8월 10일 손미경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제작하신
14처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모상은 18일 설치합니다.

*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준공 및 봉헌 미사

안 상용 루카 님, 그리고 구 요나 님이 주관하셔서,
8월 14일 '피정의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19일
11시 '피정의 집' 봉헌미사가 거행됩니다.

*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대중교통 이용 안내

용산(7:00)-청량리(7:18)-청평(7:50) ATX 전철은
용산역에서 매 시간 있습니다. 청평버스터미널(6:40,
8:10, 13:40, 17:50)-모곡 한서중학교까지는 50분
걸립니다. 청평-설악 버스는 약 1시간마다 있습니다.
잠실-설악(07:10, 08:00, 08:40, 09:45, 7000번),
청량리-설악 or 유명산(8:10, 9:10, 8004, 8005번)
직행버스를 타시면, 설악에서 모곡 피정의 집까지는
택시를(2만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